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강화

강원도 홍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인접 40개 시군 사육돼지 반출입 금지

양돈농장 정밀검사 · 야생멧돼지 포획 추진 · 임상예찰 · 소독 강화 추진

전북도가 지난 26일 강원도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약1,500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됨에 따라, 우리도 유입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내 양돈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의 임상예찰 및 소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도내 전 양돈농가 686호 140만두에 대해 지난 28일까지 임상예찰을 완료하고, 4단계 소독실시 요령에 대해 집중 홍보 및 농장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축산관련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을 이용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농가는 소독필증 휴대 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으며, 양돈농가에 모임금지 및 발생지역인 경기, 강원도 방문을 자제토록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홍보했다.

한편, 도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인 지난 2019년 9월부터 도와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협 등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생 시.군 및 인접한 40개 시.군의 사육돼지의 전북도 반입·반출을 금지해 도내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조기 색출을 위해 양돈농가 (686호), 축산관련시설(도축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했고, 야생멧돼지도 포획단 413명을 동원해 1,072두를 포획 및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건 음성으로 적극 포획 및 전수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양돈농장 중심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37억 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7대 방역시설 조기 설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태욱 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경북 상주 등 우리도 인접(31km)까지 확산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양돈농가에서는 철저한 농장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양돈농가에서는 고열, 식욕부진, 갑작스러운 폐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 시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1588-4060)할 것"을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으뜸도정상' 이 전북을 지킨다

5월 도정 발전 · 전북의 위상 빛낸 5개 우수부서 선정

전북도가 27일 '22년 5월 중 업무성과가 탁월해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이달의 으뜸도정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부서에 감염병관리과, 우수 부서에 대도약청년과, 남원의료원, 장애인복지과, 사회재난과가 선정됐다.

'감염병관리과'는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체계적 방역대응과 신속·정확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추진, △상시 감염병 재난상황 대비 '감염관리기관' 구축, △적극적 결핵 검진·관리 및 홍보로 결핵 발생률 감소, △감염병 예방 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병 퇴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대도약청년과'는 전북발전에 열정을 다해 2회 도전한 결과 '지역거점형 소통협력공간' 공모 선정으로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는 등 뜻깊은 다수의 성과를 거뒀다.

'남원의료원'은 정직하고 투명한 장례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 장례문화 선도의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한 '22년도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평가에 응모해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

'장애인복지과'는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법정 의무화 등 교육·직업 최소한 기회 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고용 교육 연수원'을 전북에 유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결실을 맺었다.

'사회재난과'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빛권 현장 방사능방재 지휘기관 건립 후보지가 부안군으로 유치되도록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종 확정됐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국제교류센터, 외국인 기술교육 지원 사업 운영

도내 외국 출신 누구나 참여 가능… 산업 인력 장기거주 기반지원

현지 활용 가능한 교육으로 전북 친화 공공외교 실현

전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가 2022년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북도 외국인 기술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북도 산업분야 종사자 인구감소 극복 및 도내 외국인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자동차 정비교육, 지게차운전기능사 학과교육(이론교육) 등 2가지의 교육 프로그램을 202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자동차 정비교육은 지난 5월 1일부터 15주간 전주비전대학교실습실(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정 자동차정비기능사 실기시험장)에서 자동차 엔진, 섀시, 전기 등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학과교육은 지게차 운전 기능사 이론시험에 나오는 한국어 용어 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외국인이 한국어 용어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완주와 익산 등 2개 지역에서 운영한다.

완주에서는 5월 29일부터 6월 26일까지, 익산은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일요일 각 5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영호 센터장은, "최근 전북도 산업인력인구수가 감소하고 있고, 센터만의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했다. 자동차 정비와 지게차 교육은 산업인력의 기술 수준 향상과 더불어 귀향 후에도 전북도를 생각하며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외국인 근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비자 변경(E9 비전문취업 → E7-4 숙련기능인력) 가산점 취득으로, 장기거주 자격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실제 도내에 거주했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북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친전북형 공공외교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불법 공중위생업소 특별단속

전북도청 특별사법경찰과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6주간 2개반 8명(특사경4, 생활안전지킴이4)을 운영해 도내 공중위생업소(마사지숍, 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피부미용업 불법행위, 유사성행위및성매매 알선등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일상회복 추진으로 대외활동 증가 등 몸매관리, 화장, 피부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불법행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마사지숍에서 △무자격영업, △불법퇴폐영업, △외국인불법고용영업 여부 등이고, 이·미용업소에서 △무신고영업행위, △점빼기, 귀볼뚫기, 쌍거풀수술,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등 무면허 의료행위, △공중위생업자가 준수 해야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호상 기자

도청 신규직원 대상 '역량강화 아카데미' 진행

새내기 공무원 공직생활 적응 앞장… '전북의 역사문화' · '한 번에 통과되는 보고서의 법칙' 강의

전북도가 최근 도청에 신규 임용된 130여명의 새내기 공무원들의 빠른 공직생활 적응과 업무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는 조직 내 MZ세대 비중 확대에 따라 신규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올바른 공직상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30일 '새내기 공무원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아카데미는 전북 역사문화와 보고서 작성에 대한 강의를 도청 공연장에서 각각 2시간씩 진행할 계획이다.

박정민 전북대 교수가 진행하는 '전북의 역사문화' 강의를 통해 전북의 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 백승권 실용글쓰기 연구소 대표의 '한 번에 통과되는 보고서의 법칙' 강의를 통해 직원들이 업무추진보고서 작성 기법을 전문적으로 배워보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이후에도 인사고충 상담창구, 심리상담 및 새내기 적응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신규 직원들이 공직사회 일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신규 직원들의 빠른 공직 적응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새내기 적응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도정을 위한 핵심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금연의 날 맞아 금연 캠페인 · 강연

전북도가 오는 31일 제35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내 금연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실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3일 전주 남부시장 및 한옥마을 일대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연 홍보물을 나눠주며 금연의 중요성과 동참을 당부했다.

또한, 오는 31일에는 도청에서 전주시 보건소와 함께, 건강 체험관을 운영해 1:1 맞춤형 건강상담 및 오경재 전북금연지원센터장을 초청해 '담배와 건강'을 주제로 강연과 금연클리닉 등록 및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축소됐던 전문금연지원서비스가 정상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금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구독 · 광고 문의 063-288-9700

제16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안내합니다.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제16회 전국 장애인가요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장애인 재능개발로 삶의 의욕을 돋구기 위한 목적으로 주최하오니 많은 사랑과 홍보를 기원합니다.

대회본부장
김양옥

대회홍보위원장
이수정(가수)

대회제전위원장
손명엽

1. 일시 : 2022년 6월 12일(일) 오후 2시 30분
2. 장소 : 전주 풍남문화광장
3. 주최 :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사
4. 주관 :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 전주시 장애인복지협회
5. 후원 : 전라북도, 전주시, 서광수출포장(주), (유)유복이엔지, 삼대농장
계성건설(주), 수정과한울타리협의회,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 참가자격 : ① 전국의 16세 이상 등록장애인
② 타 대회 대상, 최우수상 하지 않은 자

전화 : 063-286-6676 · 287-6678, FAX: 287-6676